

기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행정  
진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이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의 출발점입니다.

진도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우수공무원 포상제도 확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활 밀착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적극행정 우수협업팀과 우수공무원 선발 2회, 실행계획 수립 1회, 적극행정 위원들의 의견 수렴 2회 등 총 5회의 진도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진도군은 영광군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소극행정의 유발 요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에 대해 폭 넓은 시야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때로는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새로운 시도 속에서 얻은 경험은 우리 행정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저는 부군수로서, 직원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저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도군은 군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에 '군민 중심의 적극행정 철학'을 실현하겠습니다. 작은 불편도 외면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통해 군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진도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진도군은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과감히 도전하고, 따뜻한 행정으로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김선주 진도부군수 기고문

이제 다사다난했던 을사년(乙巳年)도 며칠 남지 않았다. 을사년의 을(乙)은 나무(木)를 상징하고 푸른색을 의미한다. 사(巳)는 뱀을 상징하고 뜨거운 에너지와 지혜를 나타낸다. 푸른색은 새로운 시작, 성장, 번영을 의미한다. 뱀(巳)은 본래 지혜, 통찰력, 강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을사년은 지혜와 성장이 어우러진 해라고 한다. 그런데 을사년은 두 사람에게 극단의 길을 걷도록 해버렸다. 20대 대통령 윤석열에서 21대 대통령 이재명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득표하여 47.83%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에게 0.73% 차이로 아슬하게 앞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그런데 재임 중 윤석열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정으로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2022년 취임했으나 결국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탄핵 심판에 회부되어 2025년 4월 4일 파면되어버렸다. 지금은 탄핵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부가 함께, 그래서 정치를 비롯한 여타의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어지러운 편이다, 모두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것들이다. 특히 병리적 행위들은 수많은 사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아름다운 미래 사회 형성할 수 있도록

람들을 블랙홀 속에 함몰시켜 버리기도 한다.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리를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성의 무한 경쟁사회에 내던져진 일반국민들은 뿌리 잃은 나무들처럼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이 표류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국민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해태하게 된다면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한 부정적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광역지역사회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국가 전체가 병들지 않겠는

가. 그랬을 때 우리들의 세상은 아비규환의 속으로 낙하되어 버리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순리를 따라야 할 때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개성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들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과 그에 따른 행위들에 대해서 구별이 아닌 차별의 잣대를 대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너를 찾는 여행도 가능할 것이고. 이는 곧 우리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로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을 때,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가 형성되는 밝고 고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현재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면 그 누구이든 간에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 아닌가.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게 되면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다.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가진 삶이 있다. 또한 앞으로 얼마든지 색다른 삶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그 삶을 인정할 때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닐까. 행복은 빼앗고 빼앗기는 게임의 산물이 아니다. 각자의 개성에 따라 각기 다른 고유한 맛과 향을 빚어내는 것이다. 행복은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Positive-Sum)의 틀에 따를 때 온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개척해 가면서 상호 간에 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기러기들처럼 서로를 지지해 주는 삶을 살도록 하자 말이다. 그래야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2, 제3의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특히 오늘부터 우리 모두 아름다운 미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불조심 강조의 달'에 다시 한 번 되새기다

난방기가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화재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이 번지기 전에 신속하게 진압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택용 소방시설, 특히 소화기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소화기 사용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하고, 큰 피해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담양군 수북면에서 발생한 화재에서는 주민이 즉시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은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전기적인 요인으로 시작되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이 쉽게 번질 위

험이 있었지만, 주민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피해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소방대는 현장에 도착한 뒤, "소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화재가 더 크게 번졌을 수 있었다"며 소화기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때 사용되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진압할 수 있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그 사용

법을 반드시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화기와 같은 기본적인 소방시설을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실천을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담양소방서 고서119안전센터 조현성

오늘의 운세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 (음력 11월 7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daily forecasts. Each sign includes a small illustration and a brief prediction for the day.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Gyeongju Expressway.